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0월 27일 (제1277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명작을 남기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친 밤 12시경, 나는 우크라이나의 슬라바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세계선교에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영적 전우(戰友)이자 동역자다. 러시아권 내에서 내 설교를 통역해준 슬라바 목사. KGB에 끌려가서도 내 집회 유튜브 브를 보여주며, “이 목사님을 건드리면 전 세계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라며 참으로 당당했던 슬라바 목사. 늘 나를 닮았으며 열정을 불태우던 슬라바 목사.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와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목사님,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오셔야 해요. 오셔서 이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통화할 때마다 간청했던 슬라바 목사. 그를 이젠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천국 입성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천사들이 반기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들고 그를 맞이하실 것이다. “수고 많았다. 애썼다.” 하시며!

슬라바 목사는 눈을 감으며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는지언정 자신의 삶에는 후회함이 전혀 없었으리라. 삶이 명작이었으니까!

맞다. 그는 멋진 작품을 남기고 갔다. 그의 작품은 명실공히 명작(名作)이고 대작(大作)이다.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슬라바 목사 역시 생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용광로와 같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세로 하늘을 찔렀다. 그는 정말 멋진 사나이였고, 최고의 목사였다. 그의 삶은 걸작(傑作)임에 분명하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그러므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한 점 후회함이 없도록 주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자. 우리도 슬라바 목사처럼 멋진 명작을 만들어보자.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고, 내가 만드는 예술품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길

지난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던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숨 쉴 겨를도 없이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Sydney) 집회를 위한 21일 작성기도를 선포하셨다. 대집회를 모두가 합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니 그 성취감을 누릴 만도 하지만, 이럴 때면 32년 전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가 생각난다. 메인스타디움 집회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전도단 본부 사무실에 기거하시며 준비하셨다. 모두가 연일 합심기도는 기본이고, 성도들이 전단

목사님은 항상,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다.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열심히 뛰어 성취하고 나면, 그 성취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선두에 서서 독려했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 3장 말씀 바로 그대로였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3~14).

목사님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12차 동

상 없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이 꿈꾸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목도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궁극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넘어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더 이상 눈물도, 슬픔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2024년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

지와 TV를 들고 나가 성령의 역사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며 수도권 전 지역을 누비며 노방전도에 매진하고, 메이저 신문사에 대대적인 지면광고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집회 당일 잠실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집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해가 기우는 즈음 모든 장비를 철수하고 전도단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전도단 사무실로 불러들이셨다. 무슨 축하 파티라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곳은 바닥에 임시 카펫을 깔아놓은 기도실이였다. 목사님은 이 집회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를 드리자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했던 기억 외에 그날의 다른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안 진행하시며 당신의 마지막 꿈은 이 땅의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라고 천명하셨다. 내일 호주 시드니 집회를 위해 떠나는데, 다녀오면 추계산상집회를 진행하고 바로 12월 초 멕시코(Mexico) 집회를 위해 떠난다. 정말 숨 가쁘게 진행되니 뒤를 돌아보고 자시고 할 시간이나 여유도 없다. 전쟁터에 나가는 말은 평시에도 앞발을 도르래에 얹어 계속 달리게 했다는 로마 군단의 전설은 목사님이 자주 비유로 드는 이야기다. 어찌 보면 목사님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온몸을 불태우다 산화하실 작정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목회 40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 고통도, 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니던가! 그래서 오늘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소망조차 없는 상한 갈대의 삶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가는 것 아니던가!

10월 9일이 언제 오나 했지만 벌써 그날은 지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그렇게 죽음의 시간도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다.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벅찬 순간이어야 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불평일랑 다 버리고, 목사님을 따라 영광의 길을 계속 달려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수고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호주 시드니 집회

10월 28일~11월 5일,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1:22~24)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부도나지 않는다

약속어음을 아십니까? 약속어음이란 발행한 사람이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으로, 저 역시 사업할 때 약속어음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당장 현찰 지급이 어려울 경우 약속어음을 끊어주는데, 이 약속어음은 철저히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발행자와 그의 기업 및 사업을 신뢰할 때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어음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현찰, 곧 당장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약속어음같이 어느 정도의 시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현찰을 줄 형편이 안 되어서 약속어음을 주시는 걸까요? 당장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열매를 따는 자는 인내하는 자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12:2).

그러나 이 약속은 현찰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어음이었습니 다. 무려 25년짜리 약속어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무려 24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도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흔들렸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마5:18).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찰 대신 25년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셨을까요? 만약 75세에 아들을 주셨더라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온전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낳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력이 쇠할 때

로 쇠한 100세에 난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았고, 그것이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열국의 아버가 되리라’는 약속어음도 부도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에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이면 살려서라도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하시겠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두 별이 절하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3년짜리 약속어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편히 아버지 밑에서 13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험산준령을 넘는 세월을 산 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 요셉은 종으로 팔린 나라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어음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현찰로 바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꿈을 통해 ‘명성(名聲)’이라는 두 글자를 보여주셨고, 제가 지구를 끌어안는 꿈을 통해 ‘세계교구’를 이루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5년짜리 약속어음이었습니 다. 15년의 세월 동안 저는 만물의 찌거처럼 대접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로 발길을 돌리게 하였고, 마침내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약속어음보다는 현찰이 좋지요. 당장 쓸 수 있으니까요. 당장 응답해주시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알아야 할

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9~11). 더 좋게 하시려고, 다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현찰 대신 약속어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약속어음이 부도났다고 툭툭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도를 낸 것이 아니라

나를 찢어버려서 부도난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가나안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만기일이 안 되었는데 현찰을 안 준다고 투덜거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2~24). 야고보 사도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고 했습니다.

또 하나,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부도를 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히6:13~15).

약속어음은 만기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현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 변하지 않고 오래 기다린 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6:12).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약속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육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약5:10~11)고 하셨습니다. 육이 받은 더블의 복도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십니다(히6:18). 그런 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분의 약속을 못 믿습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으십시오. 조금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현찰로 결제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옵니까? 꿈으로 계시하셨는데 아직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다만 그것이 2년짜리 약속어음인지, 아니면 10년짜리 약속어음인지에 따라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현찰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금번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지금까지 그랬듯 총회장 목사님과 예수중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결과물이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나에게 늘 과제를 주신다.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니 항상 장소를 찾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에 나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항상 나의 기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 장소로는 역시 서울 시청광장이 제일의 장소로 생각되어 나는 다른 장소를 찾기에 앞서 서울시청광장을 놓고 기도하며 계속 두드린다. 집회 날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휴일이 좋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뜻에 따라 행사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한 날짜에 맞추어 연초부터 서울시청에 4월, 5월, 6월의 공휴일을 놓고 계속 사용신청을 해봐도 정부 또는 지자체 행사가 우선인데다 많은 단체가 신청하는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된 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은 아예 없고 평일에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10월 공휴일 중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계속 두드려보았다. 항상 중복신청이 우려되어 이를 전 날짜로 신청하는데 10월 9일도 변함없이 이를 전인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행사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얼마 후 시청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접수는 되었지만, 동일한 날짜에 4개 단체가 동시에 중복으로 접수가 되었으니 다 같이 모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시청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접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싶어 이번에는 꼭 따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는 조정회의 참석차 시청에 도착했다. 한 단체는 이미 포기했고, 나머지 3개 단체가 서로 본인들이 해야 한다면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

던 중, 한 단체가 10월 7일부터 8일 밤까지 사용하도록 한다면 10월 9일은 양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다른 한 단체는 좋다고 했고, 결국 10월 9일은 두 단체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다. 그런데 남은 한 단체도 자기들 행사는 10월 9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순간 ‘기도 응답이다.’라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10월 8일 행사 후에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아침 8시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당신들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그들도 좋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함께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한편으론 ‘혹시 저 사람들의 행사가 우리 집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가?’하여 우려 반 걱정 반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 총회장 목사님께 LED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집회 시간에는 햇빛으로 인하여 영상이 잘 안 보인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나?” 하신다. 나는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후로 날씨를 놓고 더 많은 기도를 하였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같이하기로 한 상대 행사 총책임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려고 만나 대화하다 보니 놀랍게도 총회장 목사님 영상을 자주 보고 예배도 드렸단다.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일은 일절 하지 않겠다고 매우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듯 소소한 만남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집회를 하려면 무대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려는 위치는 제약이 많은 위치였기에 담당자와 만나 해결하려고 해도 그 담당자가 여러 현장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으며, 협의할 사항은 메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무대 위치와 규모 등의 내용을 메일

로 보내면 담당자는 우리가 설치하려는 위치는 지반이 약해 우리 같이 큰 규모의 무대는 지금까지 허락해준 경우가 없으며 안된다는 답만 보내올 뿐이었다.

마침 40일 작정기도 기간 중이었고, 오직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서울광장에 나가보니 새롭게 잔디 식재를 까느라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 그중 한 분에게 우리 무대 위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어보려 하니, 그분이 다른 쪽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젊은 여자분이 담당자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네니 “혹시 저하고 여러 번 통화하신 목사님 아니세요?” 하며 되레 아는 척을 하기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담당자를 이곳에서 만나게 된 건 분명 기도 응답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젠 됐다!’는 확신이 왔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반이 약해 안된다면 지반 구조검토를 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는 오히려, “목사님, 무슨 구조검토까지…” 하며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다른 직원을 불러 확인하고는 ‘지반 상태가 약하니 안전 받침대만 잘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흔쾌히 허락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약속대로 10월 8일 밤 10시부터 준비에 들어가 밤새워 메인무대를 쌓고 LED를 설치하며 상설무대까지 확장하는 등 모든 준비는 해가 뜰 즈음 일단락 짓고, 아침 8시부터 있는 다른 단체 행사를 치러 보내고, 이어진 의자 설치와 리허설, 정말 설 틈 없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대망의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시작될 즈음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오며 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성공으로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사회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그 막이 오

르자 준비한 의자는 이미 만석이 되었음에도 인산인해로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로 앉을 자리가 없어 광장 주위뿐 아니라 통로와 화단에까지 올라서는 등 발 디딤 틈 없이 꽉 찬 모습은 나를 감격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애국가와 평화통일을 소원하는 기도를 다 함께 외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나 총회장 목사님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메시지는 나에게 깊은 감동 그 자체였다.

과연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회를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어느 단체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는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유산으로 넘겨주자고 누가 강력하게 외치겠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중심교단과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금번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장소 섭외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철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거기에 더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과 동시에, 역시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성회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많은 분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땀 흘리며 열심으로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팀과 율동팀, 또한 예수중심교단 소속이라는 자긍심으로 멀리서부터 함께 해주신 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 봉사하신 많은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운영위원장
이석실 목사

:: 사랑의 메시지 ::

기도 응답이 왔는지 어떻게 아나요?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도 응답이 왔다는 건 바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군대에 간 아들이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연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불안해 잠 못 이를 것 같은데, 세상의 불안한 뉴스가 아무리 쏟아져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평안이다.

외국인들은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한국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본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굴에 전혀 불안함이 없고 평안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불신자들은 기념식 때마다 기도와 찬양인 줄도 모르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응답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10월 9일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고 연신 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보냈는지도 모르는 무인기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곧 전쟁이 일어날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안하다.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는 확실한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드론에는 뚫리지만, 하나님의 평안의 아이언돔은 한 번도 뚫리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우리 덕분에 응답이 온 줄도 모르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다 우리 덕분인 줄 알아요~’, 속으로 웃게 만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이 안 와서 답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평안이 오면 응답이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최연식 목사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평화통일 집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이라는 겁니다. 약 5년 전에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약 3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느 곳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이 말씀과 함께 마음에 평온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수술과 빚 3억 원에 대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고,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간암 수술은 잘 되었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출받

도록 도움을 주어 약 2억 원의 돈을 갚았고, 돈 받을 사람이 갑자기 1억 원은 저희가 돈이 준비되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이 저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신 겁니다. 2013년 처음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 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신학생이 되고 나서 맞이하는 집회여서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티판매, 봉사자 간식 챙겨드리기, 5m 넘는

배너 설치하기, 안내, 쓰레기 수거하기, 물티슈 나눠주기 등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매사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신학생 최마리아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생방송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 생명의 말씀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문산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다. 일 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당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기도 자리를 지키기로 말이다. 그런데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기간에는 성도들이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기도 자리를 지켰고, 그 결과 집회 당일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뜨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 성황리에 평화통일로 가는 12번째 교각을 잘 놓을 수 있었다. 바로 기도의 힘이다. 이것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여

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일 2부예배 설교 시간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만큼 기도에 관한 설교의 비중이 큰 주의 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이 부족’이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여가시는 분이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다. 나 또한 십여 년 전부터 기드온의 삼백 명 용사처럼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 성전에 모여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백 명의 기도 용사를 늘 꿈꿔왔다. 꿈꾼다고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우리 교회는 평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회가 있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또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데, 나는 항상 1시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갈망하고 원했다. 처음 저녁 기도회는 다섯 명 정도의 기도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배가의 배가를 거듭해 점차 많은 인원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또한 1시까지 기도하는 일꾼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단에 앞드려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자마자 총

회장 목사님의 호주 시드니 집회를 위한 21일 작정 기도가 주일날 새롭게 선포되었다. 당일부터 시작이었다. 우리 모두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과 동일한 상을 받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고, 또한 총회장 목사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호주 시드니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중심교단의 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장순천 목사

:: 한줄 소감 ::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 ▶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참여하게 된 게 처음인데 저를 사용해주시며 너무 감사했고, 작정기도 때 했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우리나라에 평화통일은 꼭 이뤄질 것입니다 -고2 박연준
- ▶ 전쟁과 평화통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우리 세대에겐 희망을 안겨준 집회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중1 장하라
- ▶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고, 그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3 김서영
- ▶ 목사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중2 이재원
- ▶ 지구 안에서는 정말 작은 교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봐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새롭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1 오윤아
- ▶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꼭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중1 이은찬

- ▶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사용됨이 가장 기뻐고, 또 더욱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2 박주찬
- ▶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부 최주미
- ▶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느낀 집회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집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부 김지원
- ▶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집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부 이한샘
- ▶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학부 이은서
- ▶ 평화통일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집회였습니다 -대학부 양은주
- ▶ 시끄럽던 세상 속, 홀로 빛나시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학부 김민지
- ▶ 평화통일에 대해 더욱 큰마음을 가지게 되는 집회였습니다. 제가 예수중심교회 성도임을 감사했습니다 -대학부 이창준
- ▶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 교단이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학부 모세현
- ▶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청년부 이주남
- ▶ 한라에서 백두까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역사는 계속되리! -청년부 송현혜
- ▶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평화통일은 다가왔다! -청년부 김정환
- ▶ 무지개로 통일의 약속을 보여주신 하나님, 가자 평화통일! -청년부 이정엽
- ▶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불태우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부 유희원
- ▶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통일로 가는 12번째 교각이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전소희
- ▶ 평화통일, 눈물 나는 일입니다. JESUS 티셔츠, 빨간 스카프를 한 탈북민 80여 명도 눈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눈물이 납니다. 제발 우리 소원대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많은 탈북민의 눈물이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탈북 미혼모 장애인 협회 총무 정경진